



사람을 사랑하게 된 진주

이정미/한국여성의 집 총무

‘저 같 곳이 없는데요, 거기 가도 되나요’ 라는 전화상담을 통해 한국여성의 집을 찾게 된 진주(가명)는, 폭력을 참다못해 남편을 살해하고 몇 년간의 수감 생활 후 집에서 쫓겨나 재혼을 한 엄마와 헤어져 할아버지 집에서 생활했으나 할아버지의 폭력과 삼촌의 성추행으로 가출하여 방황하던 16세 소녀이다.

첫인상은 안절부절하는 모습과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손은 가만히 두지 않고 머리를 계속 흔드는 불안정한 태도를 보였고 오랫동안 폭행으로 신체접촉을 피하고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의미없이 혼잣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진주가 한달 두달 생활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언니,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조금씩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신이 먼저 와서 포옹하고 인사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가끔씩 연락이 되던 엄마와 연락이 끊기자 불안해하며 다시 주위사람들에게 반항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말 혼자라는 생각에 ‘죽고싶다’라는 표현을 자주하였다.

그러면서도 연락이 끊긴 엄마에게 오히려 ‘사가 나지 않았을까’를 걱정하는 진주였다.

아직은 가정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으며 응석을 부릴 16세의 어린나이에 자신과의 연락을 회피하는 엄마의 행동에 또 한번 상처를 받았으며 이제는 엄마와의 이별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가족해체가정, 편·부모가정에서 부모의 무관심에 의해 거리로 나왔고, 잠 잘 곳이 없어서 유흥업소로 가서 일을 하고 그 곳에서 아빠같은 사람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받으면서 어른에 대한,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우리 10대 소녀들.

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모두 꿈이 있고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으며 자신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노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평범한 행복을 꿈꾸는 이들을 거리로 내몬 어른들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비록 법적기간이 1년이어서 자립할 때까지 보호는 못했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였다.

그후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진주를 보며 또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거리에서 배회하는 10대 소녀들에게 자신의 집을 나와서 방황하고 유흥업소를 스스로 찾아가는 비행청소년들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비록 가정에서는 버려졌지만 이웃, 사회에서 다시 한번 보듬어 안아준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 우리의 사회를 이끌 때 밝은 미래를 꿈 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출소녀, 유흥서비스업 경험소녀 보호시설 한국여성의 집 02)333-7511, 332-2641

2000년, 무엇이 달라지나

● **효도주택 세제지원:부모봉양,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내에 양도하고 양도주택만 3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주택청약제도 개선:2월부터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되고 주택은행에 독점권이 인정되는 청약예금 취급권한이 다른 시중은행에도 주어진다.**

● **평생교육법 시행:직장인들이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받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휴가제가 실시되며 사내(社內)대학, 원격대학이 설치되고 도자기 창(唱) 등 인간문화제에게 사사해도 상응하는 학위를 주는 문화생 학력인정제도 실시된다.**

● **실업급여 지원 확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재의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되고 최저지급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최저임금의 90%로 상향조정된다.**

● **장애인 고용 확대:7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며 장애인 공무원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채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높아진다.**

● **민방위대 편성 연령:20~50세이던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내년 7월부터 20~45세로 낮아진다.**

● **국외여행신고:군복무를 필한 사람과 면제자에 대한 국외여행 신고 및 출귀국 확인제도가 폐지된다.**

● **버스-지하철 카드 호환사용:1월중 서울 지하철 전구간에서 버스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며 상반기중 지하철카드로 버스를 타는 호환 시스템도 구축된다.**

● **지하철 6, 7호선 완전 개통:2월중 지하철 7호선 운수~신봉 구간, 7월 중 7호선 신봉~건대입구 구간과 6호선 신내~상월곡 구간, 11월 6호선 상월**

곡~역촌 구간이 개통돼 지하철 6, 7호선이 완전 개통된다.

● **무공해 천연가스(CNG)버스 운행:5월부터 15대의 무공해 천연가스버스가 3개 시내버스업체에 시범 보급되며 하반기중 480대가 추가 투입된다.**

● **전파사용료 면제: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매분기 별로 3천원씩 내왔던 전파료가 4월 폐지된다.**

● **시내전화지역번호 16개로 통합:7월 2일부터 서울(02), 부산(051), 대구(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를 제외한 전국 144개 시외전화 지역번호(DDD)가 도 단위별 16개로 통합된다.**

변경되는 각 지역별 번호는 경기(031), 강원(033), 충남(041), 충북(043), 경북(054), 경남(055), 전남(061), 전북(063)으로 통일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연령 등 인구학적 기준으로 한 생활보호대상자 구분이 폐지되고 신체,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해 생보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시행된다.**

●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기준 변경: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 연령을 7월부터 현행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장애범주 확대: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신장질환, 중증만성 심장질환, 중증만성 정신질환, 자폐질환까지 장애범주가 확대된다.**

● **의약분업 실시:7월부터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게 된다.**

● **뇌사판정 합법화:뇌사판정기준 및 판정절차를 규정해 장기기능을 위한 뇌사판정을 합법화한다.**

자료제공-연합뉴스